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

- 「한-미 청정에너지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무탄소에너지(CFE) 활용 필요성 강조
-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탄소 관리, 배터리, 에너지 혁신기술 정보 교류 및 협력 논의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지난 4월 양국 정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세계(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고, 청정전력 확대 및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11. 13.(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청정에너지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콘퍼런스)는 미국 에너지부, 양국의 기업, 학계, 연구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주제별 부문(세션)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세계(글로벌) 운동인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활용,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수소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탄소 관리 및 상용화, 첨단 배터리 기술개발 및 배터리 재활용의 협력 기회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술 부문(세션)에서는 한국의 주요 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혁신기술에 대한 패널토론, 기술 소개 홍보(Pitch) 및 양국의 연구자 간 토론 및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에서는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지난 10월 실제적 협력 플랫폼으로 공식 출범한 무탄소(CF) 연합의 이회성 회장이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세계(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방 장관은 개회사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화석연료 시대에서 시작해 온 지난 70년간의 양국 동맹을 앞으로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전환하고 더욱 굳건히 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당면한 에너지 및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청정에너지 컨퍼런스 개요
 2. 영문 보도자료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3-5125)



붙임1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청정에너지 컨퍼런스 개요

* 영문명 : The U.S.-ROK Clean Energy Conference

□ 일시·장소 : '23.11.13(월)~11.14(화), 서울 포시즌스 호텔 6층 누리볼룸

시간	구분	1일차 (11.13 월)	참석대상
09:30-10:20	개회 세션	환영사 축사 축사 세러머니(동맹70주년) 및 사진 기조연설	(韓) 산업부 장관 (美) 미대사관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 에너지부 인프라실 제레미아 바우먼 차관보 (韓) CF연합 이회성 대사
10'		휴식시간	
10:30-11:30	개회 세션	패널 토론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기회와 도전"	(좌장) 에너지경제연구원 (韓) 고려아연, 포스코경영연구소 무역보험공사 (美) Amazon 겸 ACEC 위원 에너지부 인프라실
60'		공식 오찬	
12:30-14:00	주제 세션	수소 세션 "탄소중립 및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로서의 청정수소"	(좌장) H2KOREA (韓) 한국석유공사(수소팀) SK머티리얼즈 (美) ExxonMobil, 8Rivers
14:00-15:30		탄소관리 세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S 기술의 현재와 미래"	(좌장) K-CCUS 권이균 단장 (韓) 한국석유공사(CCUS팀) 포스코인터네셔널 (美) Schlumberger New Energy Chevron Korea
30'		휴식시간 및 교류	
16:00-17:30	주제 세션	배터리 및 배터리 재활용세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현황"	(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韓) SK에코플랜트, 영풍 (美) SES AI Corp, Ascend Elements
시간	구분	2일차 (11.14 화)	참석대상
09:30-11:00	기술 세션	기술 세션 "기후변화 대응 및 시장 적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방향"	(韓)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연구원 (美) 에너지부 산업효율 및 탈탄소실 에너지부, 전력실
11:00-12:00		패널토론 "혁신기술개발, 실증 협력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	(좌장) 고려대학교 (韓)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美) 에너지부 인프라실 Princeton NuEnergy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60'		오찬	
13:00-14:30	연구 교류	청정기술 소개 및 홍보 (Pitch Session) "국립연구소 소개, 성과홍보 및 교류활동"	(韓) 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포스코미래기술연구소 (美) Argonne National Laboratory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Commemorating 70 Years of the ROK-US Alliance ; Looking Ahead to A Carbon-Free Energy Alliance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olds the “ROK-US Clean Energy Conference” to emphasize cooperation in the deployment of carbon free energy-**
- ▶ **Discussions on carbon management, battery recycling and innovative energy technologies such as hydrogen and CCUS will ensu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led by Minister Bang Moon Kyu organized the “Korea-US Clean Energy Conference” at the Four Seasons Hotel in Seoul on November 13th. The conference aimed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and elevate bilateral relations to a carbon-free energy alliance. Over 200 experts from businesses, academia, and research labs from both countries, as well as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ttended the two-day event, discussing various topics revolving arou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The conference furthers the commitments made by the two heads of state in April to promote global action on climate,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cooperate in expanding clean electricity, and build a clean energy economy.

The conference focused on expanding the deployment of carbon-free energy sources and decarbonizing the power sector, highlighting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hydrogen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carbon managem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scale-up, and in advanced batteries and battery recycling. During the conference, panelists engaged in insightful discussions on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and researchers from both countries’ government laboratories exchanged ideas and pitched their technological advances to promote partnerships.

The President of the CF Alliance, Lee Hoe-seong, delivered the keynote lecture where he presented the details of the Carbon-Free Energy (CFE) initiative, successfully launched following President Yoon’s proposal in September.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ctively utilizing carbon-free energy sources and encouraged participation in the CFE initiative to ensure it gains global traction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Minister Bang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ensuring energy security during his opening speech. “To achieve these goals, we must widely utilize various carbon-free energy (CFE) sources such as nuclear power, renewables, and hydrogen,” he stated. The Minister also emphasized the necessity of “moving beyond the fossil fuel era and transforming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into a carbon-free energy alliance. By doing so, we can work hand in hand and with even greater strength to overcome the energy and climate crises we face together. We hope this cooperation will serve as a beacon of hope for a sustainable future, leading global efforts towards a shared vision of success.”